

마태복음 19장 1-12절 말씀

- 0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
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
- 02 큰 무리가 따르거늘
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

①

- 0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
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
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
- 0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
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
- 05 말씀하시기를
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
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
- 0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
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

②

- 07 여짜오되
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
- 08 예수께서 이르시되
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
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
- 0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
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

③

- 10 제자들이 이르되
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
- 11 예수께서 이르시되
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
-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
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
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